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Case Study on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Based on Low-Income Household Types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김 영 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연구원 유 병 선***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Young-joo

Research Center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Researcher : Yoo, Byung-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urther ways of saving living cost for low-income households. For the research purpose, low-income household type was divided into three representative groups such as senior household,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household with the disabl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case households which live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uring March 14~April 10, 2010, each household was interviewed to examine the details of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structure and types of welfare services receiving. Al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among cases, there was a definite living cost reduction effect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from 12% to 150%.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required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to the children's age. Meanwhile, households including senior and the disabled indicated the necessity of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

▲주요어(Key Words) : 저소득 가구(low-income household),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생활비 절감(living cost reduction)

*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도시재생A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영주 (E-mail: youngkim79@hotmail.com)

*** 공동저자 : 유병선 (E-mail: sunmagnolia@hanmail.net)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의 질 등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이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편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및 기타 법정영세민 등 자립과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기본적인 경제활동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지원대상 등은 사실상 지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박은규, 2004; 서종균·최조순·김윤이·임덕영·선종국, 2008).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구성되므로 이들의 생활을 돕는 외부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복지요구를 반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본적인 주민의 생계문제와 과도한 주거비(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및 생활비의 증가로 지적되고 있다(임재만, 2002; 한국도시연구소, 2001).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이들의 주거수준과 경제수준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입주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수준(가구총소득)과 주거수준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출과 빚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호, 2001).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 가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구체적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 부담문제가 두드러지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 유형에 따라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른 소득 및 지출구조의 세부항목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공적인 복지서비스 수혜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가계지출 항목에 근거하여 생활비 지출항목을 세분한 뒤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별 지출비용과 현금 및 현물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대응시킨 후 이를 통해 절감된 경제적 비용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사례가구 선정기준인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문헌(유병덕, 2004; 김근용·정희남·조판기·박천규, 2004; 박은규, 2004; 홍인옥·남원석·김선미·김윤이·신명호·이호, 2005; 윤주현·김근용·박천규, 2005; 장영희·박은철, 2005; 김영주·김영태, 2007)을 분석한 결과 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구유형을 노인단독가구, 장애인(포함)가구, 학령기자녀(포함)가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특성 파악과 함께 소득 및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사례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 가양동에 소재한 G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자가 분류한 저소득 가구 유형에 부합되면서 심층면접조사에 응할 의사가

<표 1> 조사대상 일반사항

가구유형	사례	가족구성	주택특성
수급 노인단독가구	1	노부부	서울 등촌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2평형)
수급 장애인(포함)가구	2	모+자녀2명 (장애아동 포함)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4평형)
	3	모+자녀4명 (장애아동 포함)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8평형)
수급 학령기자녀가구	4	부부+자녀2명	서울 등촌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4평형)

있는 가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4개의 사례가구를 소개받았으며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선정된 조사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들이었다.

2.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0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가구들에게는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여 면접조사 일정을 정한 후 개별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과정 중의 면접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하였으며 개별 가구의 주택에 대한 사진촬영을 이용한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소득 및 지출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가구의 생활비 내역이 담긴 통장 및 관리비 영수증, 금전출납부 등의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사례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에 사용된 세부 항목은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수지항목의 구분을 적용하였다.

III. 저소득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서비스 수혜실태

1. 저소득 가구의 경제실태

저소득가구의 소득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들의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보고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8; 김영주·김영태, 2007; 박윤영 2007; 홍인옥 외, 2005). 국토해양부(2008)의 '2008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광역시의 저소득층 소득평균은 93.38만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박윤영(2007)의 연구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소득은 85.5만원으로 이중 월소득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56.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만원~100만원(24.86%), 100만원 이상(8.67%)의 순이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72.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수급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6만원으로 그 구성비율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이 63.6%, 나머지 25.7%가 근로소득으로 상당부분이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인옥 외, 2005).

한편, 저소득 가구의 지출상태를 살펴보면, 생활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저소득의 생활비(68.44만원)와 주거비(14.70만원)를 합한 지출액이 83.14만원으로 이는 소득평균의 약 89.0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보면 수급가구는 47.4만원, 비수급가구는 79.5만원(비수급가구 중 차상위가구는 90.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소득 대비 월지출의 비율로 따져볼 경우 수급가구는 월소득의 93.7%를 지출하는 것으로 소득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를 저소득 가구의 유형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지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구지출 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은 노인단독가구를 제외한, 조손가구의 경우가 9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부가구(91.1%)의 순으로 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홍인옥 외, 2005). 빈곤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가구의 지출에서는 생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의료비, 교양문화비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모선영 외, 2008).

반면, 오히려 지출이 소득규모를 초과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조영무(2004)는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2004년 1/4분기 동안 월평균 14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을 차입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박종규(2007)의 연구에서도 1분위 최저소득층은 매년 가처분소득대비 20~30%의 적자를 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증하여 2003-2004년에는 적자규모가 가처분소득대비 50%대로 급증하였고 2005-2006년에도 40%대를 기록하고 있어 최저소득층 가계의 재정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각각 901,000원, 1,087,000원으로, 소득은 2.7%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 5분위별 가계 중 적자를 낸 계층은 1분위 뿐으로 이들 가계의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7%나 늘어난 381,000원으로(통계청, 2009) 저소득층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출항목에 있어 저소득가구에게는 주거비가 가장 부담이 큰 부분으로 나타난다.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32.41%가 생필품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국토해양부, 2008). 박윤영(2007)의 연구에서도 저소득가구의 지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임대료와 관리비)로 무려 74.2%가 주거비가 가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주거비임이 밝혀졌다(홍인옥 외, 2005). 이러한 주거비부담은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포함가구,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제활동능력

이 없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지출항목 1순위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4.9%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홍인옥 외, 2005).

이러한 주거비부담정도는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RIR이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65.5%(강정희, 2010)로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의 RIR은 25.0%, 중소득층이 17.6%, 고소득층이 17.4%인 것으로 나타나(국토해양부, 2008) 저소득층의 지출항목 중 주거비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저축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7차 자료를 이용한 저소득층의 저축실태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34% 정도가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월평균 16만원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선택한 저축방법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으며, 좁은 의미의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 적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 가구 중 4.49%로 매우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은 소득기준을 150%로 올리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축가구의 비율은 40%로 약 7%가량 증가했고, 월평균 저축액은 4만원 가량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저축은 보장성 보험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적금을 활용하여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는 7.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은수, 엄태영, 2008)

이러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및 지출상태는 가구유형별로도 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에서 가구유형별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경우 106.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 78.6만원, 모자가구 78.1만원의 순이었다. 노인단독가구는 31.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당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40.1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홍인옥 외, 2005). 가구유형별 지출항목에 있어서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주거비(64.9%), 그 다음으로 식료품비(15.1%), 보건의료비(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포함 가구의 경우에도 노인단독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지출항목 1순위로 주거비(46.3%), 식료품비(20.3%), 보건의료비(17.0%)의 순이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가계지출 항목 1순위는 교육비가 3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비(28.8%), 식료품비(21.6%)의 순이었다(홍인옥 외, 200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노인과 장애인포함 가구와 같은 신체적, 건강상 제약이 있는 집단에겐 주거비, 보건의료비,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용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는 무엇보다도 자녀교육과 관련된 지출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가구

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저소득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실태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은 광범위하고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과 서비스전달을 위한 협조까지도 포함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등의 기관과 민간의 종교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중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급식 및 밀반찬 제공, 청소와 세탁, 방문간호 및 간병, 병원동행 및 수속대행, 보장구지원, 방과후 교실과 보육서비스, 후원자 연결,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등이 있다. 그밖에 동사무소에서는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식사제공 및 가사지원, 집수리나 도배, 생활상담서비스 등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가, 보건소나 무료병원에서는 무료진료와 건강검진 등이 주로 제공된다(홍인옥 외, 2005; 이경희·김영주·김성천, 2006; 이병우·김용득·김문근·강희설·박숙경·조운호·이수연, 2006).

저소득 가구의 구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인단독가구는 식사준비(급식), 밀반찬제공 서비스,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 가사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역시 식사준비(급식) 및 밀반찬제공, 건강검진과 무료진료, 방문간호 및 간병, 병원동행 및 수속대행 등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인옥 외, 2005).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정경희 외, 2005)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교통요금할인제도의 이용경험률이 7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우대할인제도의 이용경험률이 59.8%로 두 번째, 여가서비스인 경로당(48.2%)이 세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두 연구에서 노인의 이용서비스의 종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인옥 외, 2005)와 전국노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연구(정경희 외, 2005)의 차이로 이러한 이용서비스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실태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행위로

확인되었다(임연옥 외,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복지서비스를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장기에 있는 빈곤아동들은 비빈곤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출생시부터 신체적 건강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최선희·김희수, 2003). 그 외에도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거나 정서불안, 문제행동,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일으키며(박정옥, 2003), 사회성이 낮아 폐쇄적이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희, 2002). 따라서 이러한 학령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이용은 중요하다.

저소득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에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율이 10%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울복지재단, 2005) 아동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빈곤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는 아동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무료급식이나 캠프와 같은 수련활동이나 당일 집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허남순 외, 2005). 영구임대아파트의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주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주간, 단기보호시설과 식사준비(급식), 밀반찬제공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인옥 외, 2005).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도 모자가구와 부자가구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자가구의 경우에는 모자가구에 비해 급식이나 밀반찬제공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반면, 모자가구는 부자가구에 비해 건강검진이나 무료진료 등의 복지서비스 이용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홍인옥 외, 2005).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부모가 일터로 간 부모 부재 기간동안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현재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 등이 장애인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 예산은 1997년-2006년 10년간 연평균 16.9%로 증가하고 있으나(빈부차별시정위원회, 200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선우, 2008).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50%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종류는 연료사용, 통신관련요금 감면 및 할인, 승용자동차관련세금 면제 및 교통관련요금 감면 및 할인이었으며,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자

립자금 대여 등 많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율은 2007년 기준으로 장애수당 29.12%, 재활보조기구지원 31.6%, 의료재활서비스 37.5%, 자동차 지원만족도 57.9%로 나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의 부모와 장애인이 지역복지프로그램에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최민숙 외, 2004)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조사에서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만족도도 낮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경기, 대구, 전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악한 연구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에서는 노인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높았다. 그밖에 국민임대주택과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노인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보육 및 아동교육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았던 반면,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부방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및 직업안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많아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김근용 외, 2004).

한편, 복지서비스 요구는 가구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노인의 경우, 진연주(2007)의 연구에서는 다른 복지서비스보다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생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진연주, 2009). 홍인옥 외(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현재 이용중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1순위 항목으로 식사준비(급식) 및 밀반찬 제공을 가장 높게 지목하였으며 그 다음은 건강검진, 무료진료(23.1%)의 순이었다(홍인옥 외, 2005). 노인복지서비스의 요구는 노인의 성별, 연령, 경제적인 준비상태 등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박미석, 2005),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서비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빈도가 그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2003). 또한, 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노인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이가옥 외, 2001).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층

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인의 경우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의료서비스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보장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나상운, 2010).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가장 식사준비(급식), 밑반찬 제공과 건강검진, 무료진료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집수리에 대한 요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홍인옥 외, 5인). 장애인들은 의료지원, 주거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 수록,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해숙 외, 2008). 이 역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사회복지에 기반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학비지원(20.9%), 보육료 감면 및 보조(19.6%), 공부방(17.3%)으로 나타났다(서울복지재단, 2005). 영구임대주택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1순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방과후 자녀학습지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건강검진, 무료진료 등에서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홍인옥 외, 2005). 또한, 2006년 어린이 재단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1명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장학금, 생활비 지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비 지원, 학업학습지도, 캠프 등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순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6). 빈곤아동의 실태 조사연구에서는 빈곤아동의 경우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한 욕구는 적는데 비해 여행, 견학, 문화생활, 대인관계와 관련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용돈지원,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학습도우미 지원, 문화활동 지원, 진로상담, 정서함양 등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특히 가장 절실한 욕구라는 응답한 항목은 견학 및 캠프, 문화활동 지원, 특기적성 교육 등 교육에 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모선영 외, 2008).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외에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이 적절히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가구특성별 복지서비스 요구를 종합해도면, 노인 가구의 경우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반 이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가 많은 만큼 생활비 절

감을 하기 위해 식비를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검진을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좀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복지서비스보다도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구특성별 복지서비스이용을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를 통해 각 가족의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 욕구는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방식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

3. 생활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생활관리 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는 서종균 등(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종균 등(2008)은 저소득 주민을 위해 시행되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IT 플라자 교육프로그램으로 소득상승률이 5.5-9.9%로 분석되었으며, 수능공부방으로 가구당 사교육비 절감액이 55,000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컴퓨터교실로 인한 학원비대체효과가 30,000원, 건강안부서비스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시간당 4,500원,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한 시간당 4,500원의 비용절감,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한 교통비 절감이 4,0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보면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저소득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 내외라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적극적인 생활관리 서비스의 지원과 수용이 있을 경우 상당한 생활비의 절감이 가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저소득가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생활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저소득 가구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절감 사례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소득과 지출구조 면에서 두드러진 특성과 문제점을 보이는 가구는 수급가구이며 그중에서도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포함가구, 학령기자녀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하였다.

1. 사례가구 1 : 수급 노인단독가구

사례가구 1 <표 2>는 서울 등촌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2평형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할아버지, 72세/할머니, 78세)이다. 이들 노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으며 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척추수술을 해서 현재 장애 5급, 할머니 역시 양쪽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특히 할머니의 경우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장애 1, 2급인 경우에만 장애인용 콜택시가 제공됨에 따라 할아버지 혼자서 수발하며 일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또한 당뇨가 있는 할머니를 위해 매끼 식사를 잡곡식으로 해야 하므로 식비 역시 많이 드는 편이다. 그래도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반찬을 3가지씩 가져다 주는 것이 부식비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수입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83만원, 노인수당이 1인당

7만원씩 총 14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1인당 장애수당 3만원씩 6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지출의 경우 매달 잡곡을 비롯한 부식비가 약 3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 아파트 관리비는 겨울철 온수와 난방비 38,000원 정도를 포함하여 매달 약 1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임대료 41,340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5천원 정도씩 지출되며, 신문구독료를 15,000원씩 내고 있다. 그밖에 TV수신료 4,400원, 전화(핸드폰)요금 2만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지출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출항목은 의료비로 할머니의 건강상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MRI 등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사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최소 1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원 씩의 지출이 따르므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호소한다. 교통비 역시 많지는 않아도 매달 몇만원 정도씩 소비되고 있다. 그나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일주일에 5일(월~금)간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여 청소와 식사준비 등 일상적 생활을 지

<표 2> 사례가구 1 : 수급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금액			
소득	생계급여/주거급여	830,000			
	노인수당	140,000			
	장애수당	60,000			
소득 총계		1,030,000			
항목		지출액	복지서비스	실지출액	
지출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주식비	20,000	동사무소쌀지원	0
		주식(잡곡비)	300,000		300,000
		부식비	250,000		250,00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주거/ 수도·광열	임대료	150,000	수급권자임대료감면 수급권자주거급여	41,340
		관리비	18,190		18,190
		난방/급탕/전기/가스/수도	53,200		38,200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150,000	돌봄서비스바우처	0
	보건	병원비	100,000+		100,000+
		수술비*	유동적		유동적
	교통	교통비	0		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58,730	수급권자 통신료감면	35,400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0		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머용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0		0	
지출 총계		1,100,120		783,130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106.8%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76.0%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30.8%

* 수술비의 경우 고정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 비교정적인 보건의료비 지출부담이 매우 큼

원해주므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사례가구 1의 수입총액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030,000원이었으며, 실지출액은 783,130원으로 소득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국토해양부, 2008; 홍인옥 외 5인, 2005)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가구의 경우 각종 지출항목별로 복지서비스 지원금액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평균 지출총액은 1,100,12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은 106.8%로 지출이 소득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사례가구가 수혜 중인 복지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뺀 실제 지출총액은 783,130원이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인한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의 비율은 76.0%로, 복지서비스를 통한 이 가구의 비용절감효과는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의료비 등 부정기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노인가구의 경우 의료비지원과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선행연구(진연주, 2009)에도 나타나

듯이 건강이 취약한 노인에게 대한 의료비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득대비 실지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의 절반 이상(53.4%)이 주식비와 부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식사준비, 밑반찬제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선행연구(홍인옥 외, 2005)와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에겐 영양이 좋은 식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사례가구 2 : 수급 장애인 (포함) 가구

사례가구 2 <표 3>은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14평형에 거주하는 어머니(48세)와 자녀1(딸, 16세, 장애아), 자녀2(딸, 12세, 초등학교 6학년)로 구성된 수급 모자가구이다. 장애아인 큰 딸은 1년 전부터 간질증세를 보여 24시간 앞에서 돌봐야 하므로 어머니가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필요할 때에만 아이를 혼자 두고 금방 불 일을 보고 돌아오곤 한다. 장애아인 첫째도 문제지만 둘째 아이 역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호소한다. 주변에 역할 모델이 없으며, 복지관에서 수급자 자녀만 모아 운영하는 방

<표 3> 사례가구 2 : 수급 장애인 (포함) 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금액			
소득	생계급여	723,050			
	주거급여	187,600			
	장애아동수당	200,000			
	병설위문	30,000			
	부업	40,000			
소득 총계		잘못된 계산식			
항목		지출액	복지서비스	실지출액	
지출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주식비 부식비	20,000 100,000	동사무소 쌀지원	0 100,00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주거/수도·광열	임대료	45,000	수급권자임대료감면 수급권자 주거급여	33,750
		관리비	156,960		136,960
		난방/급탕/전기/가스/수도	118,180		118,18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0		0
	보건	기저귀	50,000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50,000
		언어/물리/음악치료	85,000		0
	교통	교통비	0		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121,570		121,570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71,570		71,57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180,000		180,000
지출 총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67.4%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55.4%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12.0%

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보낼 경우 오히려 더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는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모선영 외, 2008; 서울복지재단, 2005), 사례가구 2의 경우 장애아는 물론 정상아인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아의 이동과 목욕 등의 편리성을 위해 욕실의 개조가 실질히 필요하며, 주택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의자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도배 정도만 해주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측면의 생활관리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못지 않게 주거보장, 집수리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나상운, 2010; 홍인옥 외, 200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집수리 등에 대한 정책을 함께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가구 2의 경우, 저소득층의 월평균 보장성 보험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약 16만원이라고 보고한선행연구(주은수, 엄태영, 2008)와 유사하게 매달 보험료로 월수입의 약 15%를 지출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가구 2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생활비, 장애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한달에 약 1,180,650원 정도였다. 이밖에 비경상 소득으로 복지관에서 후원자를 연결하여 가끔씩 300,000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사례가구 2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지출규모가 상당히 적게(소득 대비 실질지출총액비율 55.4%)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세세한 지출구조를 드러내기 꺼려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가구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매달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생활고의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밖에도 사례가구 2는 통신비 감면 서비스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잘 몰라서 실제로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요대상자별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례가구 3 : 수급 장애인 (포함) 가구

사례가구 3 <표 4>는 서울 가양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8평형에 거주하는 가구로 40대 어머니와 17세(고등학교 2학년) 딸, 16세(고등학교 1학년, 장애아) 딸, 12세(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딸 2명 등 6인으로 구성된 수급 모자가구

이다. 장애인 둘째 딸은 일반고등학교의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수급가구가 아니었으나 IMF때 사업이 망하면서 가정이 어렵게 되었고, 4년 전에 알콜중독이던 남편과 사별한 이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례가구 3의 경우 월소득이 1,962,820원이었으며, 실질지출액은 1,037,9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거나(국토해양부, 2008; 홍인옥 외, 2005) 소득보다 지출액이 많다는 연구(박종규, 2007; 조영무, 2004)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사례가구 3의 실질지출액(1,037,900원)과 달리, 이 가구가 다양한 공공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지출액은 3,502,850원 정도로 소득대비 지출액은 178.46%에 달해 지출이 소득을 훨씬 웃도는 상태로 다른 저소득층의 소득지출패턴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뇌병변을 앓던 장애인 둘째딸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급자 신청을 하였다. 둘째딸의 다리 수술비로 빌린 돈 1,000만원을 지금까지 매달 55만원씩 갚고 있다고 한다.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당시 1억 가까운 돈을 딸의 수술비를 빌렸으나, 다행히 이후에 빚을 탕감받았으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아이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보조용구 구입 등은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는 아이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중 아이들 등교 후 어머니가 11시~2시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 가구 역시 복지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생활비 절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장애인보조용구, 아이들의 사교육비 부분에서는 사례가구 2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가구 2와 3처럼 장애인아동과 정상 아동을 함께 양육하는 가정에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정상 아동에 대한 교육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례가구의 어머니는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복지관 직원 및 주변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얻는 생활관리 정보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생활급여, 장애아동수당, 근로소득 등을 포함해 한달에 약 160만원 정도이다. 생활은 정부보조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학령기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부수입을 위하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직장을 가질 경우 수급자의 정부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이 역시 여의치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은 주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으나 이마저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아이들 학원비로 지

<표 4> 사례가구 3 : 수급 장애인 (포함) 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금액			
소득	생계급여	1,058,260			
	주거급여	274,560			
	장애아동수당	200,000			
	병설위문	30,000			
	부업	400,000			
소득 총계		잘못된 계산식			
항목		지출액	복지서비스	실지출액	
지출	식료품/음료/주류.담배	주식비 부식비	20,000 400,000	동사무소 쌀지원	0 400,00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주거/수도·광열	임대료	59,000	수급자 임대료보조	39,000
		관리비 난방/급탕/전기/가스/수도	54,290 193,460	수급자 주거급여	54,290 173,46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1,120,000	돌봄서비스바우처	0
	보건	언어/물리/음악치료	185,000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0
	교통	교통비	200,000	장애인콜택시	130,00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106,400	수급자 통신비 감면	41,150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1,164,700	중고등학교 수업료,교재비지원	200,00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0		0
	지출 총계		3,502,850		1,037,900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224.1%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66.4%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157.7%

출되는 금액도 매달 20만원 가까이 된다. 한편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의 병원 통원을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매달 차량유지비가 1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밖에 가족들마다 소지한 핸드폰 요금도 매달 4만 여원 정도 나온다. 식비의 경우 매달 쌀값으로 동사무소에서 2만원씩 지급되며 기타 부식비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매달 40~50만원 정도씩 지출된다. 주거비의 경우 관리비로 매달 20만원 정도 지출되며 임대료로 매달 5만 9천원 정도 지출된다. 사례3의 경우 어머니가 상당히 부지런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지원받음으로써 상당한 생활비 절감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 대비 지출총액의 비율이 원래는 수입의 2.25배에 달하나 이를 각종 복지서비스와 생활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157% 정도 절감하고 있었다.

4. 사례가구 4 : 수급 학령기자녀가구

사례가구 4 <표 5>는 아버지(52세), 어머니(42세), 고등학

교 2학년생인 큰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생 둘째 아들로 구성된 수급 일반 학령기자녀 가구이다. 사례가구 4는 월소득액이 1,319,390원임에 비해 실지출액이 1,416,191원으로 가구의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구는 재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아버지가 급성당뇨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한시적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대신 어머니가 현재 작은 회사의 경리(사무보조원)로 일하면서 매달 12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 그밖에 생계 및 주거급여로 매달 1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아이들이 둘 다 성장기 남자아이들이라서 매달 식비로 약 5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한창 공부할 학령기라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은 데 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학습지 또는 EBS 교재비 등의 교육비 지출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수급자가 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매달 5~6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전의 차상위계층 시절과 비교하면 약 10만

<표 5> 사례가구 4 : 수급 학령기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수입액			
소득	생계급여	94,790			
	주거급여	24,600			
	근로소득	1,200,000			
소득 총계		잘못된 계산식			
항목		지출액	복지서비스	실지출액	
지출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주식비	40,000	동사무소쌀지원	0
		부식비	500,000	친척보조	500,000
		급식비	100,000	중고등학교 급식지원	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주거/수도·광열	임대료	150,000	수급자 임대료감면	49,390
		관리비	19,630		19,630
		난방/급탕/전기/가스/수도	126,000	수급자 감면	67,0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0		0
	보건	수술비	유동적		유동적
		의료비	100,000	수급자 의료비지원	50,000
	교통	교통비	60,000		60,00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60,000	수급자 통신비 감면	30,171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446,700	중고등학교 수업료, 교재비 지원	100,00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청약저축(예금)	540,000		540,000	
	경조사비	유동적		유동적	
지출 총계		1,596,330		잘못된 계산식	

※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121.0%

※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 107.3%

※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 13.7%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인데 정기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간혹 급성당뇨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 갑작스런 병원비 지출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한다.

인터넷 및 핸드폰 요금 등을 비롯한 통신비도 차상위계층 시절과 비교할 때 수급자인 현재는 50% 정도 금액이 지원됨으로써 식구 4명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 가구의 경우 매달 5~6만원 정도가 통신비에서 절감되고 있다고 하였다. TV수신요금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복지할인을 해줌으로써 지금은 매달 23,460원 정도만 지출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소비지출로서 청약저축 10만원, 아이들 1인당 만능통장 2만원씩 4만원, 희망플러스 저축 20만원씩 총 34만원을 매달 저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소득층의 저축율이 미비하다고 한 선행연구(주은수, 엄태영, 2008)처럼, 본 연구에서는 사례가구 4만이 유일하게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정기적인 지출이긴 하지만 다달이 10만원 정도 안팎은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대리운전 등으로 부정기적인 소득이 일부 생기기도 하지만 그간의 부채 등을 갚으려면 이 역시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소득과 지출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사례가구 4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받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을 계산해 본 결과 121.0%로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중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출총액과 소득총액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비율은 107.3%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여전히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구조이긴 해도 복지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가구 역시 아버지의 건강악화와 학령기 자녀들의 교육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에 대비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비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소득과 지출구조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생활관리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에 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 중 가장 대표적으로 생활상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수급자 노인가구, 수급자 학령기자녀 가구 및 수급자 장애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가구유형을 대표하는 실제 사례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생활비 지출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의 규모가 적게는 12% 정도에서 많게는 150% 이상까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령기자녀를 둔 가구들은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공교육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어 학령기 자녀가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교육 관련 복지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에 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치중되는 보호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양육과정에서 소외를 받게 되는 정상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종합복지관 등에서 학령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컴퓨터, 영어 등 일반 사교육 기관에서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학생들의 경우 종합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가 높지만 중학교 이후 시기에는 복지관의 교육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잦은 병원 출입 등 외출시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서비스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즉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하여 제한된 교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다른 정상인가구에 비해 교통편에 접근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수고가 필요한 것으

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의 지원확대와 같은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소득이 적다 보니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제외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할 여유가 거의 없다. 특히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이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 장애인보조용품, 수술비 등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합리적인 생활관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사대상 사례가구 중에는 주변의 이웃이나 복지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 가구별로 필요한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매뉴얼화하여 배포하거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한 합리적인 생활관리를 이룰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저소득 주민의 복지관련 업무는 각 지역별 주민센터(동사무소) 내에 소수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이러한 인력과 기구만으로는 이들의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창구와 전문인력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구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용·정희남·조판기·박천규(2004). 공공임대주택 배분 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영주·김영태(200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실태와 의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5), 73-84.
- 김정호(2001).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평가 : 전·후비교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6(7), 285-296.
- 나상운(2010).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과 인지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모선영·홍백의·이자영·최은성(2008). 빈곤아동의 생활

- 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어린이재단 서비스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 재단.
-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83-307.
- 박미석(2005).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5.
- 박신영·진미윤(2001).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대한주택공사
- 박윤영(2007).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3), 99-129.
- 박은규(2004).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자자체의 복지프로그램 확대적용 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박정옥(2003).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규(2007). 한일 최저소득층 평균 소비서향 비교 및 시사점. 금융포커스 16(2), 8-9.
- 빈부격차해소위원회(2006).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 서울복지재단(2005).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 서종균·최소준·김윤아·임덕영·선종국(2008),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유병덕(2004), 도시빈민의 사회문화적 특성 -청주시 S영구임대아파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한국도시연구소, 9, 1-28.
- 유해숙·전동일(2008).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인 재확복지, 12(1). 1-17.
- 윤주현·김근용·박천규(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 이가옥·이미진(2001).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113-124.
- 이경희·김영주·김성천,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사회복지관과 관리사무소의 업무 역할 분담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 이병우·김용득·김문근·강희설·박숙경·조윤호·이수연(2006),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보고서.
- 임연옥·윤현숙(2009).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중단연구-서울과 춘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1063-2085.
- 임영희(2002).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 가정 아동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재만(2002).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0(1), 1-14.
- 장영희·박은철(2005).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재록·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빈곤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주은수·엄태영(2008). 도시 저소득 계층의 저축실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도시연구, 9(2), 1-17.
- 진연주(2009). 노인의 복지서비스 요구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경제적 노후 준비전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3, 227-246.
- 최민숙·강영택(2004).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인의 복지프로그램-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8(1), 153-167.
- 최선희·김희수(2004). 빈곤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연구. 청와대
- 통계청(2009). 2009년 2분기 가계동향
- 한국도시연구소(2001), 공공임대주택 관리전문화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7).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홍인옥·남원석·김선미·김윤아·신명호·이호(2005),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건설교통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ohom.co.kr>

□ 접수일 : 2010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6일